

고령 인구 비율 1위 전남 '왕진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의사·한의사 방문 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참여율 1.3% 불과 김원이 의원 "수요 많지만 인프라 열악...수도권 위주 진행"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남지역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지만 오히려 지방의 왕진 서비스는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만 9507곳(의원 3만4958곳·한의원 1만4549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만9938건이다.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고혈압, 당뇨, 육장 등이었다. 한의사는 등통증, 중풍(뇌졸중) 후유증, 척추병증, 연조직(근육·인대·힘줄)장애,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35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24.1%), 전북(23.4%) 순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방제일누각 '광주 희경루' 소실 100년만에 중건



20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희경루에서 중건식이 열리고 있다.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1417~1475)가 '동방에서 제일가는 누각'이라고 표현한 희경루(喜慶樓)는 1451년(문종 1년) 무진군수 안철석이 옛 공복루 터에 건립한 누각으로 19세기까지 실존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강기정 시장, 뒷편 현판 글씨 참여

동방 제일 누각 '희경루(喜慶樓)'가 돌아왔다. 최초 건립된 지 572년, 사라진 지 100여년 만에 그 증을 거쳐 중건됐다. 광주시는 20일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박영근 대목장(시무형문화제), 천득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오기주 광주시향교전교협회의회장,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중건식'을 개최했다. 희경루는 1450년부터 1451년(문종 원년-문종 1년) 무진군수 안철석이 옛 공복루 터에 건립했던 누각이다. 때마침 무진군이 광주목으로 승격·복합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을 담아 '희경(喜慶)'이라는 이름을 담아

지어진 호남 대표 누정이다. 당시 신숙주는 '동방(東方)에서 제일가는 누(樓)'라 칭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전라도 정도 천년(2018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소실된 누각을 중건하기로 하고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국대에 소장 중인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화도를 바탕으로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원래 위치는 현재 충장우체국 일원으로 파악됐지만 광주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복원이 아닌 중건으로 불린다. 희경루 정면 현판은 1451년 광주목 복호와 희경루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신 대왕실록'에서 집자했으며, 후면 현판은 필문 이선제 선생의 후손인 이남진 서예가의 지도를 받아 강기정 광주시장의 붓자. 광주광역시장인, '강기

정인' 등 2개의 낙관도 들어갔다. 자문위원회는 앞서 한자 현판에 채택된 집자와 함께 유명한 서예가에게 의뢰하거나 과거 지방관 격인 시장이 직접 쓰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애초 강 시장은 부담감을 표하며 희경루와 관계된 다른 인물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지만, 자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호남 서예계를 대표한 학정 이돈홍 서예가에게 현판 글씨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그가 2020년 별세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천득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과거에도 목민관이나 지방관, 누각이 조성되는데 기여한 인물이나 그 후손이 현판을 쓴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5개 기업 선정

외식산업 4곳·기술산업 1곳...맛집·멋집 전국 유명기업 육성

전남도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했다. 전남도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바라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전남 프랜차이즈 산업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5개 유망 기업 선정은 공모 접수된 총 43개 업체 중 1차 교육 대상(20개사) 선정부터 2차 컨설팅(10개사), 3차 사업화 지원 대상(5개사) 선정까지 세 차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전남의 우수한 식재료 및 식문화 활용 외식산업 분야 4개사와 기술산업 분야 1개사로 구성됐다. 외식산업 분야는 ▲전남의 식자재를 활용한 외식업체 '한끼'(강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11종

의 수제맥주와 푸드퍼어링된 수제버거를 판매하는 '(유)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순천) ▲뼈삼겹과 통목살을 연탄불로 굽는 특색있는 고깃집 '꼭대기연탄'(여수) ▲반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담양식 숯불갈비 고깃집 '시골돼지 담양숯불갈비'(화순)다. 기술산업 분야는 자체 개발 피칭머신을 도입한 스크린아구장 '와니엘'(무안)이다. 김혜련 와니엘 대표는 "교육을 통해 얻은 프랜차이즈 지식과 사업화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와 상생·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나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은 선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1대 1 컨설팅을 받으며 프랜차이즈화 추진 관련 궁금했던 점이 일부 해소됐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관광객·투자유치 위해 중국행

상하이시정부 고위급 회담...대규모 관광설명회 등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무안국제공항 출성하고 중국인 단체관광 유치와 2차전지 분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3일간의 중국 상하이 방문길에 오른다. 지난 7월 여수에서 개최한 '중화권 경제·관광의 날'에서 중국 기업과 투자·수출협약을 한 지 3개월 만에 중국 현지를 방문해 전남 경제·관광 세일즈에 나서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방중 첫 날인 21일 우호교류 중인 상하이시를 방문해 시정부 고위급 회담을 진행, 관광 활성화와 투자 확대 등 다방면의 교류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하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전시관인 상하이시 도시기획관에 들러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고, 오래된 수향마을을 재생한 사례로 꼽히는 판

룽전에서 도시재생의 사례도 체험한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관광설명회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중국 동방항공 등과 상하이-무안 간 정기노선 업무협약도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이후 단체 관광이 허용된 중국 관광객의 전남도 방문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중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나라다에너지와 울춘산단에 생산공장 건립 투자협약을 한다. 이어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기업 화유코발트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 협약을 나눈다. 김영록 지사는 "중국과의 관광·투자 업무협약을 통한 양국 간 교류 확대에 상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